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 빅솔론 (093190)

다양한 산업용 프린터 분야 강소기업

## 체크포인트

- 빅솔론은 산업용 프린터 전문기업으로, 2002년 설립. 아이디스홀딩스가 2017년 12월 빅솔론을 인수한 이후 아이디스 그룹에 편입됨. 포스(POS) 프린터와 라벨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가 주력 사업이고 프린팅 메커니즘, 시스템 매출을 신성장 부문으로 키우는 중
- 투자포인트는 1) 라벨 프린터 신제품 효과 기대, 2) 중장기적으로 매장솔루션 터키 매출 확대 전망
- 중국 산업용 프린터 업체들의 국내 진출로 국내 매출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리스크. 다만 빅솔론은 기조적으로 해외 수출 위주의 기업이고(2024년 기준 수출 비중 77.7%), 고부가 신제품 출시, 터키 매출 확대 등 전략으로 국내 시장 대응할 예정

##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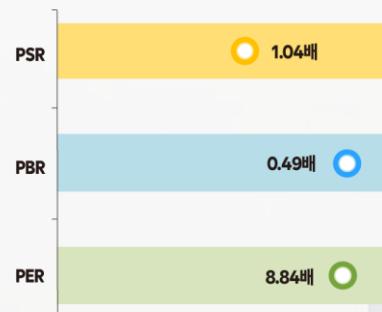


## 재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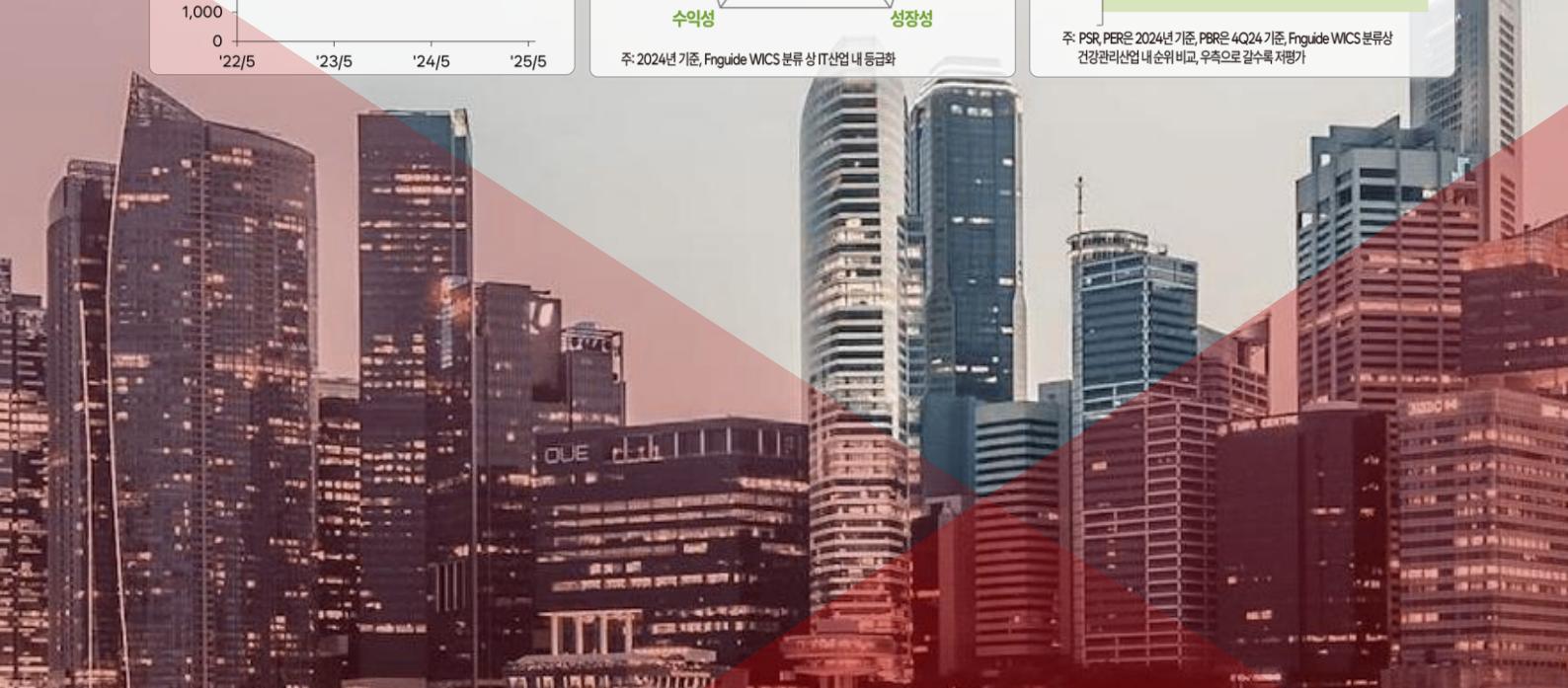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 빅솔론 (093190)

KOSDAQ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혜빈 hbkim@kirs.or.kr

기술하드웨어와장비

## 빅솔론은 산업용 프린터 분야 강소기업

빅솔론은 다양한 산업용 프린터 제조 기업으로 2002년 삼성전기로부터 분사되어 설립. 부문별 매출 비중은 포스(POS) 프린터 38.2%, 라벨 프린터 25.8%, 모바일 프린터 17.0%, 프린팅 메커니즘 4.7%, 시스템 0.6%, 기타 13.7%(2024년 연간 기준)

## 글로벌 포스 프린터 시장은 2024~2033년 연평균 6.1%로 성장 전망

산업용 프린터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프린터로, 주 유형으로는 포스(POS), 라벨(Label), 모바일(Mobile) 프린터 등이 있음. 산업용 프린터는 개인용/기업용과 달리 대부분 감열 방식으로 특수 용지에 열을 가하여 이미지나 텍스트를 인쇄하는 방식임. 레이저(Laser) 또는 잉크젯(INKjet)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와 같은 소모품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 포스 프린터와 같은 산업용 프린터 산업은 중소 업체들 위주인 틈새 시장. 글로벌 포스 프린터 시장은 키오스크 도입 등에 따라 2024년 35.3억 달러에서 연평균 6.1% 성장하여 2033년 60.6억 달러에 이를 전망

## 2025년 견조한 실적 기대

2025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266억 원(+11.5% YoY), 122억 원(+29.0% YoY)으로 전망. 전사 성장은 라벨 프린터와 모바일 프린터, 시스템 매출이 이끌 것으로 예상(라벨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 시스템 매출액 전년 대비 각각 +14.0%, +12.0%, +47.0% 증가 기대). 매출액 규모의 경제 효과와 고부가 제품 확대, 신제품 출시로 영업이익은 29.0% 성장한 122억 원 전망. 2025년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은 약 40.7% 상승 중. 이는 최근 2년여간 주가 약세에 따른 낙폭 과대 인식과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 매장솔루션 터키 매출 확대와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빅솔론의 실적 성장세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기대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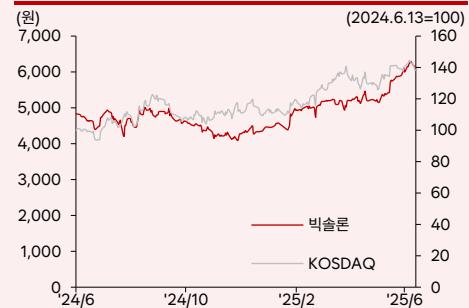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004	1,349	1,081	1,135	1,266
YoY(%)	34.8	34.4	-19.8	5.0	11.5
영업이익(억원)	140	251	93	94	122
OP 마진(%)	14.0	18.6	8.6	8.3	9.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58	108	110	133	153
EPS(원)	1,340	562	573	693	796
YoY(%)	360.4	-58.1	2.0	21.0	14.8
PER(배)	5.0	12.5	9.9	6.3	7.7
PSR(배)	1.3	1.0	1.0	0.7	0.9
EV/EBITDA(배)	4.0	3.4	6.3	3.9	2.9
PBR(배)	0.8	0.8	0.6	0.4	0.6
ROE(%)	16.2	6.2	6.2	7.3	8.0
배당수익률(%)	3.8	5.7	3.5	4.6	3.3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Company Data

현재주가 (7/1)	6,100원
52주 최고가	6,290원
52주 최저가	4,095원
KOSDAQ (7/1)	78367p
자본금	96억원
시가총액	1,174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9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억원
외국인지분율	11.18%
주요주주	아이디스홀딩스 외 3인
	46.45%

## Price & Relative Performance



##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6.1	40.7	31.3
상대주가	-0.3	22.1	41.2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베이스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베이스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베이스에이션 매력도 높음.



## 기업 개요

### 1 빅솔론은 산업용 프린터 제조/판매 기업

**빅솔론은 2002년 삼성전기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이후,  
2007년 코스닥 상장한 산업용  
프린터 제조 및 판매 기업**

빅솔론은 산업용 프린터 전문기업이다. 2002년 삼성전기에서 종업원 지주회사로서 분사되어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 빅솔론은 포스(POS) 프린터 분야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고 2005년 빅솔론 아메리카와 빅솔론 유럽 법인을 설립하며 성장하였다. 2007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2010년대는 빅솔론의 본격적인 성장기였다. 2010년 중기청으로부터 '글로벌강소기업'에, 같은 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하든챔피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3년 산업자원부 및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오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고, 2014년 중기청으로부터 '월드클래스300'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15~2017년 3개년 연속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라이징스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7년 빅솔론은 도약기이자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2017년 12월 동사는 아이디스홀딩스에 피인수되며 아이디스 그룹에 편입되었다. 2022년 산업자원부로부터 '모바일 프린터 세계일류상품'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칠천만불 수출의 탑' 상을 수상하였다. 2024년에는 중남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자 멕시코법인을 설립하였다.

#### 빅솔론 주요 연혁

기반 구축기(2002년~2008년) 자체 브랜드 개발, 해외법인 설립 및 국내외 판매망 구축으로 사업 기반 확보	성장기(2009년~2017년) 신규 제품군 출시(모바일리밸)로 수익성 향상	도약기(2018년~현재) 대형 거래처 개척/라벨 제품 라인업 확대 및 매출 상승
<b>2002.11</b> 코리아프린팅시스템(주) 설립	<b>2010.08</b> 글로벌강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	<b>2017.12</b> (주)아이디스홀딩스 그룹사에 편입
<b>2003.01</b> 삼성전기(주)에서 POS Printer 관련 사업 양수	<b>2010.09</b> 하든챔피언 선정(수출입은행)	<b>2020.01</b> UAE(아랍에미리트) 사무소 설립
<b>2004.09</b>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브랜드 개발 "BIXOLON"	<b>2011.10</b> 본점 이전(판교테크노밸리)	<b>2020.12</b> 벤처창업부(중유공포장 대행) 경영
<b>2005.01</b> 국내 생산법인 설립(에버린트)	<b>2012.11</b> 대통령표창(벤처기업육성)	<b>2022.11</b> 모바일 프린터 세계일류상품 선정
<b>2005.10</b> BIXOLON America Inc 설립	<b>2013.06</b> 하든챔피언 선정(한국기제소)	<b>2022.12</b> 칠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b>2005.12</b> BIXOLON Europe GmbH 설립	<b>2013.12</b> 오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b>2023.02</b> 본점 이전(아이디스타워)
<b>2007.08</b> 코스닥 상장	<b>2014.06</b> 월드클래스300업체로 선정	<b>2024.02</b> 멕시코법인 설립
<b>2007.11</b> 삼천만 수출의 탑 수상	<b>2015~2017</b> 3개년 연속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b>2008.07</b> 충주 자가생산공장 설립(대통령상 체계 구축)		

자료: 빅솔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2025년 1분기말 기준

#### 연결 종속회사는 6개사

빅솔론은 연결 종속회사로 6개사(Bixolon America Inc, Bixolon Europe GmbH, BIXOLON MEXICO, S.A. DE C.V., (주)아이베스트, 메디치 2022-1 그로쓰 투자조합, 에버린트)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법인 3개사(각각 모두 지분율 100.0% 보유)는 각각 미주, 유럽, 멕시코 현지 및 인접국가 시장 공략을 위해 프린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아이베스트(지분율 50.0% 보유)의 경우, 아이디스 그룹의 신규 사업 및 투자를 담당하는 법인이다. 에버린트는 각종 프린터 및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여 빅솔론에 납품하거나 또는 대기업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위탁생산) 형태로 납품한다.

## 빅솔론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1Q25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 2024년 기준 매출 비중은

**포스 프린터 38.2%,**

**라벨 프린터 25.8%,**

**모바일 프린터 17.0% 등 차지**

빅솔론은 다양한 산업용 프린터를 제조 및 판매한다. 크게 6개 부문, 즉 포스(POS) 프린터, 라벨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 프린팅 메커니즘, 시스템, 기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4년 연간 사업보고서 기준 부문별 매출 비중은 포스(POS) 프린터 38.2%, 라벨 프린터 25.8%, 모바일 프린터 17.0%, 프린팅 메커니즘 4.7%, 시스템 0.6%, 기타 13.7%이다.

각 부문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포스(POS) 프린터란

#### 포스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 소형 프린터

### 1) 포스(POS) 프린터

포스(POS, Point of Sale) 프린터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레스토랑 등 각종 영수증을 발행하는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포스 시스템이나 금전등록기 또는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소형 프린터를 말한다. 최근에는 주방에서 음식주문 확인, 컵 라벨링 및 배달음식 확인용 등으로 쓰이고 있다.

빅솔론의 2인치, 3인치 영수증 프린터는 감열식(열에 민감한 용지에 직접 가열하여 인쇄하는 방식)과 도트식(인쇄 헤드에 바늘로 종이 등을 두드리는 방식) 인쇄 방식을 지원한다. 일반 영수증 용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용지로도 인쇄가 가능하고, 축소 인쇄 등 비용절감 기능을 제공한다. 다양한 인터페이스 옵션, 빠른 인쇄속도와 우수한 인쇄품질을 지원하여 리테일과 식품/외식 산업 내 다양한 용도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빅솔론 포스 프린터



자료: 빅솔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라벨 프린터란 데이터가 저장된

#### 바코드 등을 인쇄하는 것으로,

#### 빅솔론은 라이너리스 전용 특수

#### 라벨 프린터도 판매

### 2) 라벨 프린터

라벨 프린터는 공장 및 택배사, 의료기관 등에서 필요 정보를 바코드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인쇄 및 저장하도록 하는 프린팅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외에 식품성분 확인, 컵 라벨링, 각종 저울 등에도 라벨 프린터가 사용되는 등 과거 대비 그 사용처는 다양해지고 있다.

감열식(리본없이 열에 민감한 용지에 직접 가열하여 인쇄하는 방식)과 열전사(리본에 잉크를 묻히고 열을 가하여 용지에 전사하는 방식) 인쇄 방식을 지원하는 빅솔론의 2인치, 4인치 라벨 인쇄 솔루션은 산업용 프린터와 데스크톱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빅솔론은 라이너리스(후지 없이 라벨용지에 인쇄) 전용, 태블릿 일체형 라벨 프린터 등과 같은 특수 라벨 프린터도 판매 중이다. 동사는 소량 인쇄부터 대량의 라벨링 작업까지 다양한 사용환경을 지원하며 고객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빅솔론 라벨 프린터



자료: 빅솔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모바일 프린터는 스마트 기기

##### 보급확대로 사용처 확대 중

#### 3) 모바일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는 휴대가 가능한 소형 프린터이다. 물류, AS, 방문판매, 주유소, 주차장, 식당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또한 한 라벨 기능을 추가하여 가격 변동을 표기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주로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블루투스, 무선랜으로 연동되어 사용되며, 스마트 기기 보급확대로 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업계를 주도하는 빅솔론의 모바일 프린터는 심플하면서도 견고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높은 호환성과 안정적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2, 3, 4인치 모바일 인쇄 솔루션은 영수증, 티켓, 라벨, 라이너리스 및 UHF RFID(전자파를 이용한 근거리 정보 인식 기술) 라벨 인쇄 용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 빅솔론 모바일 프린터



자료: 빅솔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프린팅 메커니즘이란 키오스크

등의 장비에 내장되어 출력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품

## 4) 프린팅 메커니즘

프린팅 메커니즘이란 CAT(카드조회단말기), 의료장비, 계측기, 택시미터기, 키오스크(KIOSK) 등에 내장되어 출력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품 개념이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키오스크용 프린터 및 관련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빅솔론의 2, 3인치 키오스크 프린터는 셀프서비스 키오스크에 내장되어 다양한 영수증, 티켓, 라벨 등을 출력 가능하다. 동 제품들은 유지보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고, 유연한 거치 방식이 특징이다. 베젤 및 프리젠테이터 등 각종 옵션들도 제공한다.

## 빅솔론 프린팅 메커니즘



SMP 시리즈

## POS 및 키오스크 내장에 최적화된 인쇄 솔루션

빅솔론의 2,3인치 프린터 메커니즘은 다양한 하드웨어에 편리하게 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됨, 다양한 텍스트, 이미지, 바코드, 영수증, 티켓 등을 인쇄할 수 있음

자료: 빅솔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시스템은 매출은 사업 초기 단계로

매출 규모는 작음

## 5) 시스템

동사의 시스템 매출은 키오스크 및 포스 시스템의 완제품 형태 매출을 말한다. 아직 사업 시작단계여서 매출액 규모가 크지는 않다.

## 빅솔론 시스템



자료: 빅솔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3 주고객은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등

**2024년 기준 수출 비중은 77.7%로 글로벌 해외 SI업체들과 장기적 파트너쉽을 통해 해외 수출 위주로 사업을 영위 중. 전방 수요처는 소매, 식품, 유통 등 다양**

빅솔론의 고객은 여러 산업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소매, 식품/의식, 유통/물류, 의료, 제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계층, 규모의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2024년 연간 기준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77.7%로 빅솔론은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 중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SI(system integration) 업체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통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외에 각 국가 및 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주문을 받고 제품을 납품한다.

수요가 많은 유럽, 미주 및 남미 지역에는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여 직접 판매하고 있다. 또한, 중동(UAE 등) 및 아프리카 지역에는 해외 사무소를 통해 영업/판매가 이루어진다. 기타 지역에는 거점별로 Sales 대리인을 고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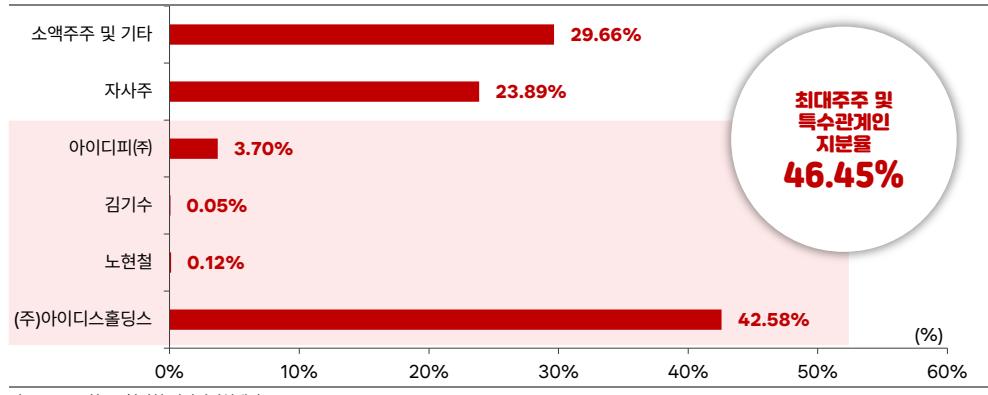
## 4 최대주주 등은 아이디스홀딩스 외 3인

**최대주주 등은 아이디스홀딩스 외 3인으로, 지분을 46.45% 보유**

빅솔론 최대주주 등은 아이디스홀딩스 외 3인으로, 최대주주 등은 1Q25말 기준으로 지분율 46.45%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디스홀딩스는 2017년 12월 빅솔론을 인수하였다. 아이디스홀딩스의 대표이사는 김영달 회장(1968년생)으로, 아이디스홀딩스 지분 34.05%를 보유하며 아이디스 그룹을 이끌고 있다.

노현철 대표이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POSCO 재무본부에서 경영기획 등 업무를 수행한 후(1995~1999), 아이디스에서 경영기획팀장을 맡았다(2000~2011). 이후 그는 아이디피 및 빅솔론의 대표이사직을 각각 2005년, 2017년 이래 현재까지 맡아오고 있다.

## 빅솔론 주주 현황(1Q25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1 포스(POS) 프린터 산업 현황****산업용 프린터는 대부분 감열****방식으로, 별도의 소모품 매출은****발생하지 않는 구조**

산업용 프린터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프린터로, 주요 유형으로는 포스(POS), 라벨(Label), 모바일(Mobile) 프린터 등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가정용/기업용 프린터 시장은 프린터 본체의 누적 판매대수에 비례해 교체주기가 짧은 소모품(ex. 토너카트리지)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산업용 프린터는 대부분 감열 방식(아래에 설명 참조)으로, 레이저(Laser) 또는 잉크젯(INKjet)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와 같은 소모품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감열식 프린터는 특수 용지에 열을 가하여 이미지나 텍스트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주로 영수증, 티켓, 라벨 등을 인쇄하는 데에 사용된다. 특수 용지인 감열 용지는 일반 용지와 다르게 열에 민감한 화학 물질로 코팅되어 있어, 열이 가해질 때에 색이 변하도록 되어 있다.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수천개의 작은 열 요소로 이루어진 열 인쇄 헤드가 인쇄 명령에 따라 특정 패턴으로 열을 발생시켜 감열 용지에 열을 전달하면, 용지의 코팅된 해당 부분들이 열에 반응하여 검은 색(또는 단일색)으로 변화되며 인쇄된다.

감열식 프린터의 장점은 1) 인쇄 속도가 빠르고, 2) 기계적인 잉크 투사가 없으므로 가동시 소음이 없으며, 3) 잉크나 토너 카트리지의 교체가 불필요하여 유지비용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1) 특수 용지가 필요하기에 일반 용지보다는 용지 가격이 비싸고, 2) 인쇄물이 열에 민감하여 시간이 지나면 인쇄가 흐려질 수 있다.

이렇듯 산업용 프린터 시장은 소모품 기반의 수익 구조보다는 프린터 본체가 제조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프린터 시장 내 산업용 프린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39.1%이며, 글로벌 산업용 프린터 시장은 2023년 521억 달러에서 2030년 710억 달러까지 CAGR 4.5%로 성장할 전망이다.

**포스 프린터와 같은 산업용 프린터****산업은 중소 업체들이 진입 할 수****있는 틈새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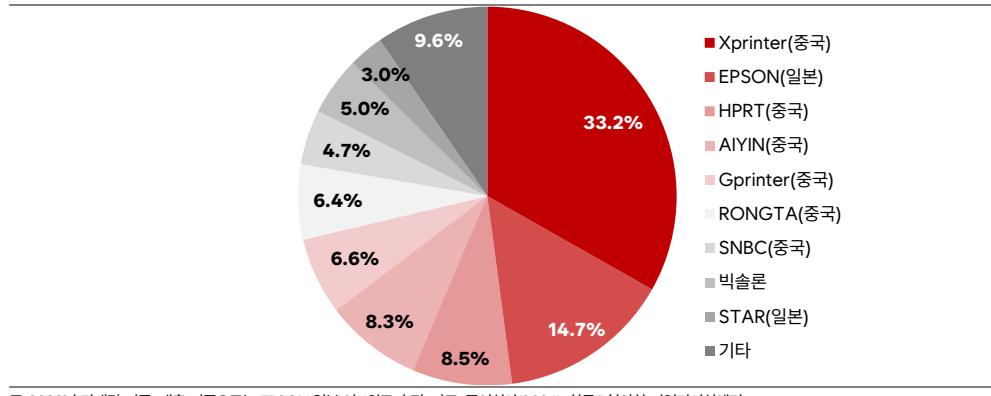
포스(POS: Point of Sale) 프린터란,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발행하는 영수증을 출력하는 것으로, 물품 명칭, 수량, 가격, 합계 및 기타 거래정보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총칭한다. 즉, 소매 및 서비스 사업 등 영수증을 발행하는 장소에서 포스 시스템이나 금전 등록기(또는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시스템)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PC기반 소형 프린터를 의미한다.

HP, 캐논, 브리더 등이 주도하는 레이저/잉크젯 프린터 시장과 달리, 포스 프린터는 중소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틈새 시장인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 프린터는 특수 용지인 감열 용지에 열을 가해 출력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컬러 인쇄는 불가능하며 단일색의 빠른 출력이 가능하다. 즉, 레이저/잉크젯 프린터와 포스 프린터는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라,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둘째, 포스 프린터 시장은 일반 프린터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즉 시장성이 떨어져) 글로벌 프린터 기업들의 적극적 진입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HP 등은 수익성이 높은 소모품 및 프린팅 서비스 시장에 집중하고, 포스 프린터 등은 OEM 업체를 통해 위탁 생산(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포스 프린터 판매량****기준 점유율은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차지**

2023년 포스 프린터의 판매량 기준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Xprinter(중국)가 33.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EPSON(일본), 8위권 빅솔론(한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포스 프린터 시장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Xprinter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포스 프린터 시장 점유율(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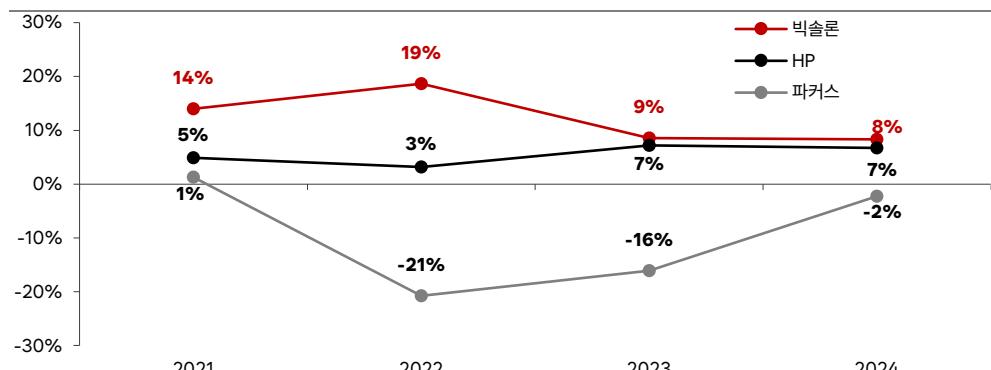


주: 2023년 판매량 기준, 매출 기준으로는 EPSON(일본)이 1위로 추정, 자료: 준이치사(2024),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용 프린터 업체인 빅솔론은****가정용 프린터 업체 및 프린터****부품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영업이익률 시현**

글로벌 레이저/잉크젯 프린터 기업인 HP, 국내 프린터 부품 전문기업인 파커스, 국내 산업용 프린터 제조 기업인 빅솔론의 최근 4개년 영업이익률 추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용 프린터 기업인 빅솔론의 경우, 틈새 시장 공략으로 HP, 파커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인 파커스와 빅솔론의 최근 4개년간 영업이익률은 최소 10%p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프린터 부품 업체들이 특정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단가 인하 압력에 노출되는 반면, 포스 프린터 등 산업용 프린터 제조 업체는 수요처가 비교적 분산되어 있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업체들의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포스 프린터 경쟁 강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린터 업체별 영업이익률 비교



주: HP는 10월 결산법인, 자료: HP,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글로벌 포스 프린터 시장은

키오스크 및 조세 제도 도입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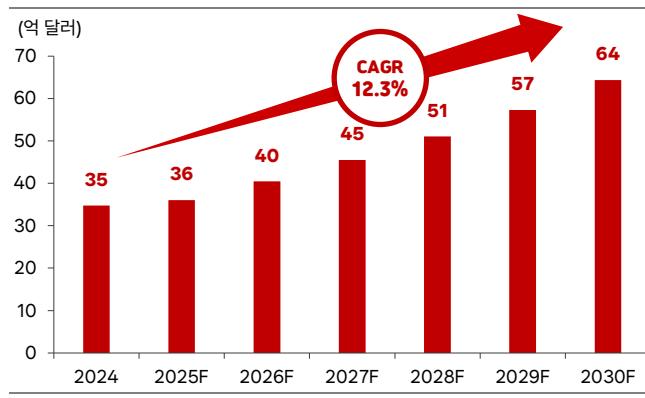
따라 2024~2033년 연평균

6.1% 성장할 전망

포스 프린터 시장에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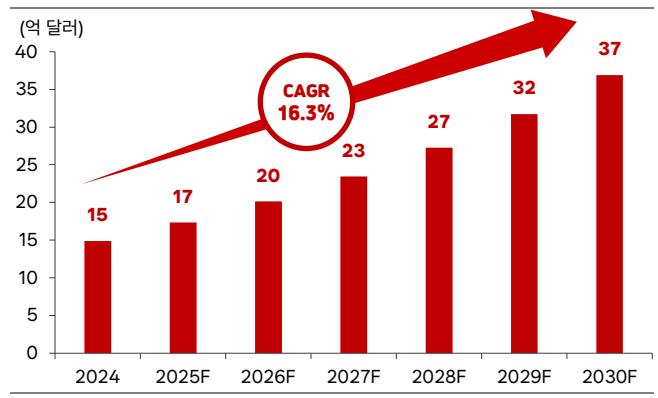
기회 요인은 팬데믹 이후 무인화 흐름에 따른 키오스크 수요 증가이다. 특히 음식 주문, 소매품 셀프 체크아웃 등 소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키오스크 시장은 2024년 35억 달러에서 2030년 64억 달러까지 연평균 1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방용 프린터 수요 증가, 부가세 등 조세 제도 도입, 영수증 제도 일반화 등으로 인해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포스 프린터 수요의 구조적인 확대도 기대된다. 반면, 위기 요인은 전자상거래 결재 증가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포스 시스템 수요 감소이다. 글로벌 디지털 영수증 시장은 2024년 15억 달러에서 2032년까지 연평균 16.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포스 시스템 및 프린터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usiness Research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포스 프린터 시장은 2024년 35.3억 달러에서 연평균 6.1% 성장하여 2033년 60.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키오스크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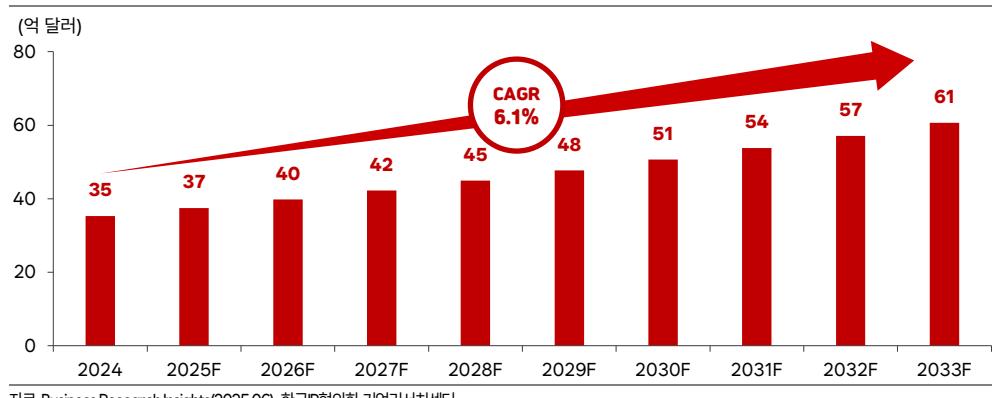
자료: Research and Markets(2025.04),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글로벌 디지털 영수증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Market Research Future(2025.06),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글로벌 포스 프린터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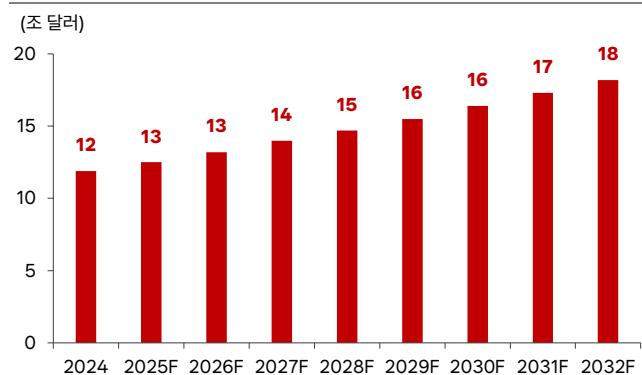
자료: Business Research Insights(2025.06),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 라벨(Label) 및 모바일(Mobile) 프린터 산업 현황

**라벨 프린터는 스티커 형태의 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로, 특히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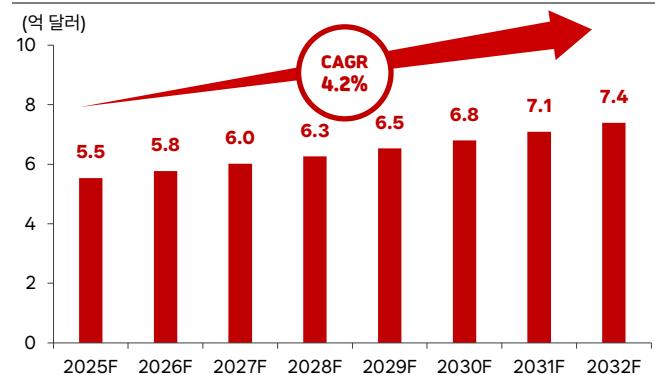
라벨 프린터는 라벨 전용지(뒷면에 점착 처리가 된 스티커 형태의 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로, 제조업, 의료업, 소매업, 물류업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재고관리, 제품 식별, 자산 추적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물류 자동화 기조에 따라 QR코드 및 바코드 기반의 라벨 인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확대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 기반 판매자의 택배 송장 출력 수요도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 개정과 전자라벨(e-Label)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산업 내 라벨 출력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한 사물 식별 기술)의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라벨에 RFID 태그를 삽입해 재고 및 이력 관리를 자동화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RFID 프린터의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Future Market Insight에 따르면 글로벌 라벨 프린터 시장은 2025년 5.5억 달러에서 2035년까지 연평균 4.2%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물류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Precedence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라벨 프린터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Future Market Insigh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모바일 프린터는 포스 및 라벨 프린터 대비 시장 규모는 작으나 2024년 1.3억 달러에서 연평균 7.8% 성장할 전망**

모바일 프린터는 포스와 라벨 프린터의 휴대용 버전으로, Wi-Fi 등의 무선 연결방식을 통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와 연결 가능한 프린터를 말한다. Market Research Future에 따르면, 휴대성 및 편의성 개선, 원격 인쇄 수요가 증가 등에 따라 글로벌 모바일 프린터 시장 규모는 2024년 1.3억 달러에서 연평균 7.8% 증가하여 2034년 2.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벨 및 모바일 프린터 시장 글로벌 점유율 1위는 미국의 Zebra**

라벨 및 모바일 프린터 시장의 글로벌 선두 업체는 Zebra(미국)이며, 이외에도 Honeywell(미국), Sato(일본), TEC(일본), TSC(대만), Argox(대만) 등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빅솔론의 모바일 프린터 제품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5% 이상, 5위 이내 요건을 충족하여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 1 라벨 프린터 신제품 효과 기대

라이너리스 라벨 프린터는  
이형지가 없어 친환경적인 고사양  
제품으로, 이커머스/물류 기업  
중심으로 수요 확대 중

라벨 프린터 부문은 동사 매출액 중 포스 프린터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벨 프린터의 수요는 이커머스/물류 시장의 확대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日준이치에 따르면, 판매량 기준 글로벌 라벨 프린터 시장은 2023년 497만대를 기록하였고, 2024년 522만대에서 2029년까지 641만대로 연평균 4.2%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벨 프린터 시장 내에서 특히 라이너리스(Linerless) 프린터 제품의 수요는 지속 증가되고 있다. 라이너리스(Linerless) 라벨은 일반 라벨 전용지와 달리 이형지(라이너, Liner)가 없는 라벨을 말한다. 일반 라벨은 뒷면에 종이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라이너가 붙어 있어 인쇄 후 폐기물이 발생하는 반면, 라이너리스 라벨은 뒷면에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별도 이형지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룰당 인쇄 가능한 라벨 수를 늘려 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최근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및 종이 폐기물 감축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 점차 의무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라이너리스 프린터는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고사양 제품으로, 기존 캡 라벨 용지 사용 대비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동 제품 라인업은 2, 3, 4인치 프린터로 구성되며, 접착력에 따라 Permanent 용지와 Re-stick 용지 인쇄를 모두 지원한다.

빅솔론은 2022년부터 글로벌 편의점 기업에 라이너리스 프린터를 납품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환경보호 니즈 및 업무 효율성 증대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 증가에 기인하였다. 다수의 물류기업들 입장에서는 라벨링 추적 자동화를 통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재고관리 정확도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 라벨 프린터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 세계 최초의 라이너리스 라벨 인쇄 전용 프린터: 빅솔론 XL5-40

뛰어난 내구성	친환경 솔루션	다양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Anti-Jamming, Anti-Curling 기술 및 두 개의 플레이트 롤러 토퍼</li><li>유니크한 페이퍼패스 설계</li><li>세계 유일의 길로틴 커터와 Taken Sensor™ 토퍼</li><li>빅솔론 B-linerless™ 또는 빅솔론에서 승인한 용지 사용 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반 라벨 용지 대비 한 룰 당 약 40% 이상 라벨 출력 가능</li><li>하나의 룰용지로 다양한 길이의 라벨 출력 지원</li><li>창고비, 운송비 절감 및 다운타임 감소</li><li>실리콘 후지쓰레기 매립 불필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세계 최고속 라이너리스 인쇄 속도 6ips (152mm/sec)</li><li>듀얼 밴드 WLAN (5 GHz &amp; 2.4 GHz)</li><li>듀얼 모드 블루투스 V4.2 클래식 &amp; LE 지원</li><li>Twin Functions™ 및 무료 라벨 소프트웨어 지원</li><li>SoftAP를 통한 손쉬운 와이파이 세팅</li><li>빅솔론의 웹 기반 디바이스 관리 툴 XPM™ &amp; XCM™ 지원 (옵션)</li></ul>

자료: 빅솔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4분기에는 라벨 프린터 신제품****5종 출시 예정, 하반기에는 글로벌  
기업형 제품 라인업 증가 기대**

라벨 프린터 부문 신제품(총 5종)들이 4Q25부터 다수 출시되어 라벨 프린터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2H25부터 글로벌 라벨 전문기업(미국)향으로 납품되는 제품 라인업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납품되던 일반형, 보급형 외 중형산업용, 데스크탑용 판매가 추가 논의 중).

구체적으로 4Q25부터 출시될 신제품은 산업용 2종과 데스크탑용 3종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라벨 프린터 매출액은 2024년 293억 원이었으나, 2025년 334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4Q25부터 신제품들은 순차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효과는 2026년에 좀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중장기적으로 매장솔루션 터키 매출 확대 기대****2026년 이후부터는 국내향****매장솔루션 터키 매출 증가 전망**

중장기적으로 국내 매장솔루션 터키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매장솔루션이란 빅솔론이 고객에게 제안하는 종합관리 시스템 서비스로, 포스 프린터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및 서빙로봇, 부가 장비 등을 터키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러 시스템 및 디바이스를 통합하여 고객 입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소상공인 및 기업 입장에서는 빅솔론의 매장솔루션을 도입하면 대규모의 회사 식당, 카페, 행사장 등에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관리가 가능하다. 빅솔론 입장에서는 매출의 증대를, 채택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이고 최적화된 대고객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칠 수 있게 되어 빅솔론-고객 간 상호 win-win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빅솔론은 전담 영업인력을 충원하였고, 빅솔론 본사 내에 관련 데모룸(시연룸)을 완비, 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차적인 타겟 고객은 소규모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목표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중견~대기업 식음료 기업들로 고객군을 확장할 예정이다. 빅솔론은 현재 국내 매출액이 수출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를 타파하는 데에 있어 본 사업이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련 매출액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솔론 매장솔루션: 포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부가장비**

자료: 빅솔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4년 연간 실적 Review**
**2024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135억 원(+5.0% YoY),**  
**94억 원(+1.6% YoY) 기록**

2024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135억 원, 94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는데 이는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포스 프린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5% 증가한 점이 주효했다(매출 부문별로 보면, 전년 대비 포스 프린터 +14.5%, 라벨 프린터 +1.0%, 모바일 프린터 -12.4%, 프린팅 메커니즘 -8.1%, 시스템 +53.0%, 기타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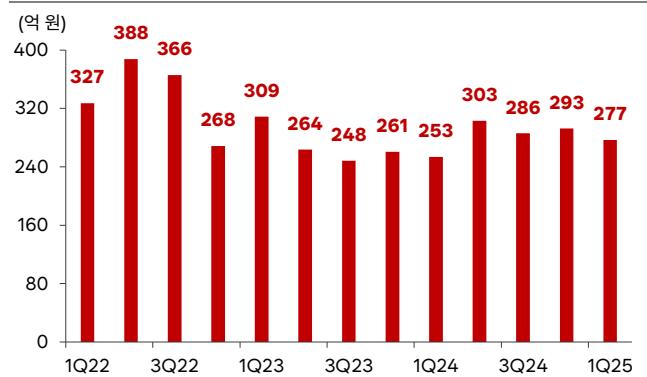
연간 영업이익은 94억 원으로 전년(93억 원) 수준이었다. 매출액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는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판관비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참고로 전체 판관비는 전년 대비 약 6억 원 증가하였는데 그 중 인건비가 약 4억 원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2 1Q25 실적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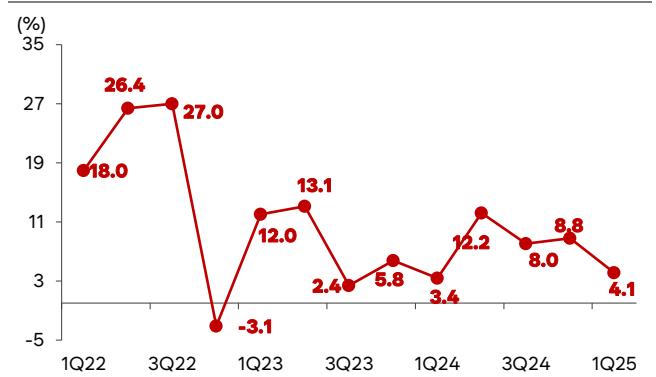
1Q25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277억 원(+9.2% YoY),**  
**11억 원(+31.7% YoY) 기록**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277억 원, 11억 원이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253억 원) 대비 9.2% 증가하였는데, 이는 모바일 프린터와 라벨 프린터 그리고 시스템 관련 수요가 견조했던 점에 기인하였다.

1Q25 영업이익은 11억 원으로 전년 동기(9억 원) 대비 31.7% 증가하였다. 매출원가는 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148억 원) 대비 증가하였고 판관비도 103억 원으로 전년 동기(97억 원) 대비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규모의 증가 효과로 인해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은 4.1%로 전년 동기 3.4% 대비 0.7%p 증가에 그쳤다.

**분기 매출액 추이(연결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연결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 2025년,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대

### 2025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266억 원(+11.5% YoY),  
122억 원(+29.0% YoY)으로  
전망

2025년 매출액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연간 매출액은 1,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할 전망이다. 전사 성장은 라벨 프린터와 모바일 프린터, 시스템 매출이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POS 프린터, 라벨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 시스템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0.0%, 14.0%, 12.0%, 47.0% 성장하는 등 전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을 기대한다. 매출액 증가는 이커머스/물류 시장의 수요 성장과 라이너리스 프린터 등 고부가제품의 확대, 신제품 출시 효과 등에 기인할 전망이다.

사업 부문별로 2025년 매출액 전망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스 프린터 477억 원(+10.0% YoY), 라벨 프린터 334억 원(+14.0% YoY), 모바일 프린터 216억 원(+12.0% YoY), 프린팅 메커니즘 59억 원(+11.0% YoY), 시스템 11억 원(+47.0% YoY), 기타 170억 원(+9.0% YoY)이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0% 증가한 122억 원일 것으로 전망한다. 매출액 성장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와 고부가 제품 확대, 신제품 출시로 인한 일부 제품믹스 개선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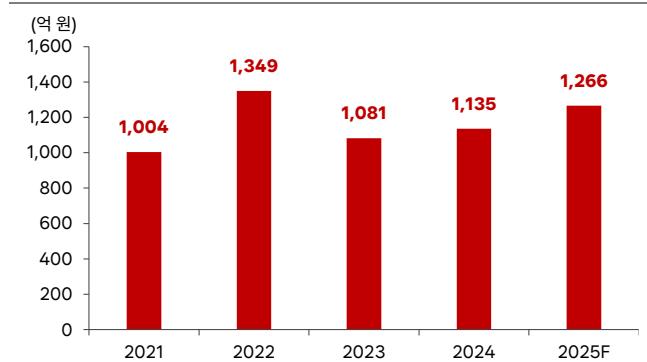
종장기적으로 매장솔루션 터키 매출 확대와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빅솔론의 실적 성장세는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004	1,349	1,081	1,135	1,266
프린터	886	1,193	946	972	1,085
POS 프린터	363	566	378	434	477
Label 프린터	248	278	290	293	334
Mobile 프린터	209	290	220	193	216
프린팅 Mechanism	67	60	58	53	59
시스템			4.7	7	11
기타	117	156	131	156	170
영업이익	140	251	93	94	122
지배주주순이익	258	108	110	133	153
YoY 증감률					
매출액	34.8	34.4	-19.8	5.0	11.5
영업이익	237.7	79.4	-63.1	1.6	29.0
지배주주순이익	360.4	-58.1	2.0	21.0	14.4
영업이익률	14.0	18.6	8.6	8.3	9.6
지배주주순이익률	25.7	8.0	10.2	11.8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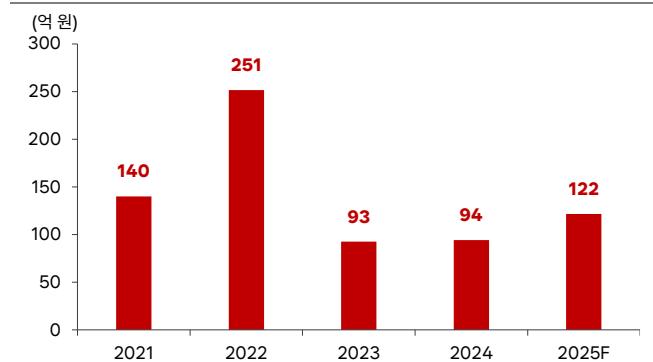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연결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연결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Valuation

### 1 PER 7.7배로 거래 중

#### 동사 PER 밸류에이션은 코스닥 시장보다 낮음

2025년 7월 1일 기준 시가총액은 1,174억 원 수준이다. 2025년 동사의 예상 PER은 7.7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26.0 배) 대비 낮게 거래되고 있다.

#### Peer로 TSC, SEIKO EPSON 등을 선정

빅솔론은 산업용 프린터 제조/판매 전문기업이다. 동사와 유사 기업은 국내 상장사 중에 포스뱅크, 해외 상장 기업으로 대만 TSC, 일본 SEIKO EPSON, 일본 STAR Micronics, 미국 Zebra가 있다. 비상장사 Xprinter, HPRT, AIYIN를 제외하고, 동사 Peer로 TSC, SEIKO EPSON, STAR Micronics, Zebra를 선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포스뱅크는 컨센서스 부재로 제외). 밸류에이션 비교 지표로는 PER 및 PBR을 선택하였다.

2025년 비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각각 다음과 같다(동사 PER 7.7배, PBR 0.6배 VS TSC, SEIKO EPSON 등 해외 유사 기업 PER 평균 15.0배, PBR 평균 1.7배). 빅솔론은 해외 유사 기업들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중 빅솔론과 가장 유사한 해외 기업인 TSC와 동사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TSC 역시 동사 대비 높은 PER 및 PBR을 받고 있는데, 이는 1) 1991년 TSC 설립 이래 글로벌 바코드 라벨 프린터 시장에서 장기간 업력과 기술력을 쌓아온 점, 2) 2024년 국내 산업용 모바일 IoT 솔루션 기업인 '블루버드' 인수를 통해 태블릿, RFID 기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성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원, 달러, 십억 원, 백만 달러, 배, %)

기업명	종가	시가 총액	매출액		PER		PBR	
			2024	2025F	2024	2025F	2024	2025F
코스피	3,090	2,463,577	3,721,719	3,001,398	-	11.2	1.1	1.0
코스닥	784	405,762	334,267	113,920	-	26.0	2.9	2.5
<b>빅솔론</b>	<b>6,100</b>	<b>117</b>	<b>114</b>	<b>127</b>	<b>6.3</b>	<b>7.7</b>	<b>0.4</b>	<b>0.6</b>
TSC(대만)	6.7	321	267	370	14.2	10.9	1.9	1.5
SEIKO EPSON(일본)	13.1	4,889	9.1	9.3	14.1	11.7	1.0	0.7
STAR Micronics(일본)	11.8	567	0.4	0.5	35.1	15.3	0.8	0.8
Zebra(미국)	308.4	16,043	4,981	5,247	38.0	21.9	5.6	4.0
<b>동종그룹 평균</b>					<b>25.4</b>	<b>15.0</b>	<b>2.3</b>	<b>1.7</b>

주: 2025년 7월 1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Refinitiv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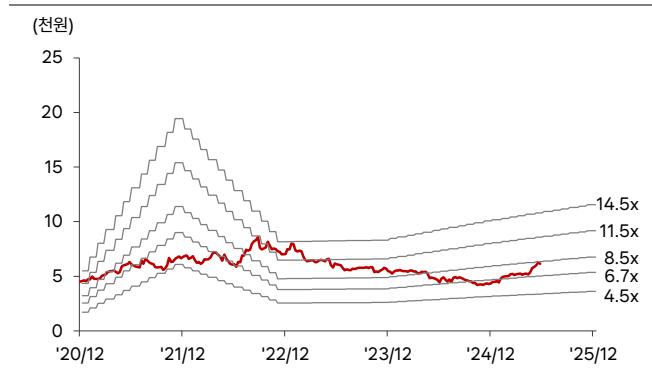
#### 2023~2024년 빅솔론 주가는 부진. 그러나 2025년 들어서며 견조한 주가 상승세 시현 중

빅솔론 주가는 2023년, 2024년 연간 각각 18.9%, 23.7% 하락하며 부진하였다. 실적 하락이 그 주 요인이었다고 추정된다. 빅솔론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349억 원, 251억 원으로 매우 견조하였으나, 이후 2023년 매출액 1,081억 원, 영업이익 93억 원, 2024년 매출액 1,135억 원, 9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부진한 모습이었다.

빅솔론 주가는 2025년 들어서며 상승하여 최근 2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2025년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은 약 40.7% 상승을 시현 중이다. 이는 최근 2년여간의 주가 약세에 따른 낙폭 과대 인식과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6월 4일 출범한 신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들이 다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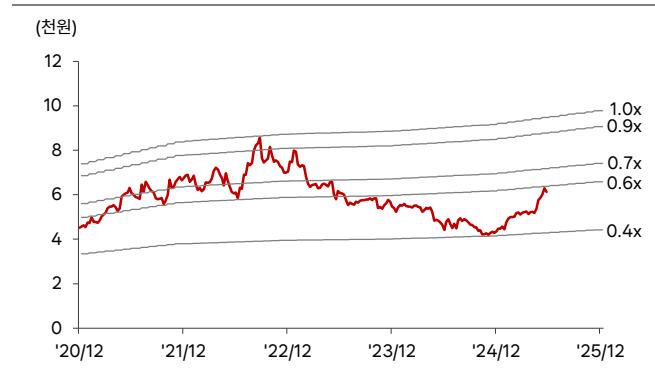
오고 있는데 이를 주가가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도 추정된다. 동사의 경우 1Q25말 기준으로 보유 자사주 비율이 23.89%로 매우 높다(빅솔론은 주가 약세 시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10차례 이상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여 자사주 보유량이 높아짐). 만약,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진다면 주식수 감소로 인한 EPS(주당순이익) 상승이 실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장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투자자들은 향후 기업 보유 자사주 소각 관련 법제화 여부나 관련 진행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PE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B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중국 산업용 프린터 업체들의 국내 진출로 국내 매출 위축 지속 우려

#### 국내 매출 위축은 리스크 요인이나

고부가 신제품 출시, 턴키 매출

확대 등 전략으로 국내 시장

대응할 예정

최근 빅솔론의 국내 매출액은 축소되고 있다. 2022~2024년 기간 연간 기준 빅솔론 국내 매출액은 199억 원 → 172억 원 → 159억 원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중국 산업용 프린터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의 경우 국내 경기의 하락 영향도 가중된 걸로 보인다. 빅솔론은 기조적으로 해외 수출 위주의 기업이고(2024년 기준 수출 비중 77.7%), 성장의 방향성도 일단 해외 시장 중심인 것은 사실이나, 국내 매출 절대 규모가 감소세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다.

위축되는 국내 사업을 만회하기 위해 향후 빅솔론은 1) 고부가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2) 매장솔루션 턴키 매출의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성장성을 확보하며, 3)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부가 보급형 제품 영역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은 자제하고 고품질 중심, 제품력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004	1,349	1,081	1,135	1,266
증가율(%)	34.8	34.4	-19.8	5.0	11.5
매출원가	677	763	645	660	722
매출원가율(%)	67.4	56.6	59.7	58.1	57.0
매출총이익	327	585	437	475	544
매출이익률(%)	32.6	43.4	40.4	41.8	43.0
판매관리비	187	334	344	380	422
판관비율(%)	18.6	24.8	31.8	33.5	33.3
EBITDA	190	303	150	156	259
EBITDA 이익률(%)	18.9	22.5	13.9	13.8	20.4
증가율(%)	121.8	59.4	-50.5	4.3	65.4
영업이익	140	251	93	94	122
영업이익률(%)	14.0	18.6	8.6	8.3	9.6
증가율(%)	237.7	79.4	-63.1	1.6	29.0
영업외손익	171	-115	26	65	66
금융수익	165	103	64	71	74
금융비용	5	128	46	20	22
기타영업외손익	11	-90	8	15	14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4	-3	-4	-4
세전계속사업이익	311	140	115	155	183
증가율(%)	1,198.2	-54.8	-17.8	34.3	18.3
법인세비용	52	37	10	22	30
계속사업이익	259	103	105	133	153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59	103	105	133	153
당기순이익률(%)	25.8	7.6	9.7	11.7	12.1
증가율(%)	362.7	-60.2	2.5	26.0	15.3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58	108	110	133	153

##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1,363	1,391	1,130	1,183	1,459
현금성자산	388	235	156	181	343
단기투자자산	451	428	338	371	412
매출채권	154	180	134	198	221
재고자산	331	509	457	396	442
기타유동자산	40	39	46	37	41
비유동자산	919	1,046	1,188	1,190	1,060
유형자산	159	186	386	359	224
무형자산	12	18	16	16	14
투자자산	315	420	378	403	411
기타비유동자산	433	422	408	412	411
자산총계	2,283	2,436	2,318	2,373	2,519
유동부채	193	292	182	161	178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75	93	60	71	79
기타유동부채	118	199	122	90	99
비유동부채	92	88	62	80	86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4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88	88	62	80	86
부채총계	285	379	244	242	264
지배주주지분	1,696	1,766	1,792	1,855	1,979
자본금	96	96	96	96	96
자본잉여금	55	55	55	55	55
자본조정 등	-207	-206	-215	-255	-25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	-1	-4	5	5
이익잉여금	1,750	1,822	1,860	1,954	2,078
자본총계	1,998	2,057	2,074	2,131	2,255

##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53	162	108	186	204
당기순이익	259	103	105	133	153
유형자산 상각비	49	49	54	60	135
무형자산 상각비	1	2	3	2	2
외환손익	0	10	3	1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92	-187	-49	-20	-50
기타	-64	185	-8	10	-36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23	-326	-100	-73	-2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337	-314	30	-12	-3
유형자산의 감소	5	1	0	24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5	-27	-217	-62	0
기타	-436	14	87	-23	-2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45	12	-89	-92	-30
차입금의 증가(감소)	2	0	0	0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600	65	0	0	0
배당금	-25	-40	-64	-32	-30
기타	-32	-13	-25	-60	0
기타현금흐름	6	-1	1	4	14
현금의증가(감소)	-119	-152	-80	25	162
기초현금	507	388	235	156	181
기말현금	388	235	156	181	343

##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5.0	12.5	9.9	6.3	7.7
P/B(배)	0.8	0.8	0.6	0.4	0.6
P/S(배)	1.3	1.0	1.0	0.7	0.9
EV/EBITDA(배)	4.0	3.4	6.3	3.9	2.9
배당수익률(%)	3.8	5.7	3.5	4.6	3.3
EPS(원)	1,340	562	573	693	796
BPS(원)	8,818	9,181	9,312	9,643	10,289
SPS(원)	5,218	7,012	5,620	5,899	6,578
DPS(원)	250	400	200	200	200
수익성(%)					
ROE	16.2	6.2	6.2	7.3	8.0
ROA	13.2	4.4	4.4	5.7	6.3
ROIC	33.4	29.0	9.7	10.5	12.6
안정성(%)					
유동비율	705.7	476.4	620.8	733.0	821.7
부채비율	14.3	18.5	11.7	11.3	11.7
순차입금비율	-40.7	-29.0	-20.8	-23.4	-31.2
이자보상배율	289.7	150.0	33.3	43.1	60.4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6	0.5	0.5	0.5
매출채권회전율	7.8	8.1	6.9	6.8	6.0
재고자산회전율	3.4	3.2	2.2	2.7	3.0

##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빅솔론	X	X	X

###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7.02	빅솔론-다양한 산업용 프린터 분야 강소기업
2022.08.29	빅솔론-고가 라인업 확대로 22F 영업이익 +111% YoY 전망

###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